

3/8(화) 스가랴 묵상 21

스가랴 11:12-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매우 난해하고 해석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분량이 많아서 둘로 나뉘었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11장 전체의 말씀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7절에 기록된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입니다(7절,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죽을 양 떼를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비록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자기 사육의 도구로 삼아 각각 팔아서 넘겼지만 하나님은 막대기 둘을 취하여 양 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사용하신 원리가 막대기 둘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총과 연합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조차 싫어하였고 거절하게 됩니다(슥 11:8하,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 결과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시게 됩니다(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9절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꺾으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조차 거절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사악함은 어디까지 드러나게 됩니까? 선한 목자의 품삯을 은 삼십 개에 달아서 정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악함이 나타납니다(12-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 바 그 삶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당시 은 30개는 히브리 중 한 사람의 값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액수로 목자의 수고를 아주 형편없이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은 요구를 하신 것은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해도 되지 않자 속이 상하셔서 “내 품삯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기고 가롯유다가 죽자 그것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사건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정확히 예언되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악한 목자의 멸망

하나님은 스가랴서 11장에서 악한 목자들을 끝내 심판하시게 됩니다. 먼저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시고 그가 행하는 악한 행위로 인해 결국 그를 심판하시게 됩니다(16-17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이며 또 그 굵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는 유다의 포로귀환 이후로도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신 이후로도 악한 목자들은 이 땅에서 활동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같은 처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품삯을 달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품삯으로 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오히려 ‘나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따진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품삯을 은 30에 환산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 품삯을 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보시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순전한 마음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렌지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페루아마존 홍성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